

글로벌 뉴스 다이제스트 26.07.28(오전)

26.07.28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

뉴스 라운드업

- 미-이란 주말 교전 중단 합의 → WTI -7.5%(\$82.61/배럴) · 미국 10 년물 금리 -3.4bp(4.647%) · 유로존 금리 동반 하락 — 에너지발 단기 인플레이 압력 완화
- 연준(Fed) 7/29 FOMC 결정 대기 — 금리선물 인상 38%·동결 62% 반영 속 뉴욕 증시 사실상 보합(S&P 500 +0.02%, 나스닥 -0.18%), VIX 18.68 소폭 상승
- 美 6 월 핵심 자본재 수주 +0.9%, 출하 +1.9%(4 년 반 만 최대) — AI 설비투자 확대가 제조업 수요 견인
- 미국, 중국·EU 등 60 개국에 '강제노동' 명목 추가 관세(10~12.5%) 부과 — 중국 상무부 즉각 반발·철회 촉구

미-이란 교전 중단에 유가가 급락하며 인플레이 경계심이 단기 완화됐지만, 연준 결정을 앞둔 관망이 주가 반등을 제한했다

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이 상호 공급 중단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확인되면서 월요일(현지시간) WTI 는 배럴당 82.61 달러로 7.5% 하락, 일주일 만의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.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단기 우려가 완화되자 미국 10 년물 국채금리(-3.4bp, 4.647%)와 독일 분트(-4.9bp, 3.134%)가 동반 하락했다. 금은 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 경계 완화에도 불구하고 +0.60% 오른 온스당 4,077 달러를 기록했는데,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시장의 신중한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. 이미 월요일 낮에 해당 소식을 소화한 아시아 증시는 코스피 +0.97%, 항생 +0.98%, CSI300 +1.15%, 닛케이 +0.50%로 일제히 강세 마감했다. 하우스 뷰가 에너지발 인플레이 2 차 충격 우려를 핵심 리스크로 지목해 왔는데, 이번 유가 급락으로 그 단기 압력이 상당 부분 완화된 점은 기존 판단과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다.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공급 차질이 구조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닌 만큼 이 완화가 지속적일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.

반면 뉴욕 증시가 안도 랠리를 소화하지 못하고 보합에 그친 것은 29 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결정이 최대 변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. 금리선물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동결 62%, 인상 38%를 반영하고 있으며, 9 월 이후에는 인상 확률이 83%까지 올라가 있다. 달러인덱스(DXY)가 101.50 으로 거의 변화 없이 마감한 것도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다.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'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'며 연준에 금리 인하를 촉구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미했다. 한편 6 월 핵심 자본재(비방산 항공기 제외) 출하가 +1.9%로 4 년 반 만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은 AI 설비투자 확대가 제조업 수요를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지표로, Core PCE 3.4%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투자 사이클은 살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.

무역 전선의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. 미국이 지난 금요일 중국을 포함한 60 개 교역국에 '강제노동' 명목의 추가 관세(10~12.5%)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가 월요일 즉각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. 아울러 중국이 국산 침전형 심자외선(DUV) 노광장비 양산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, ASML 이 독점적으로 공급해온 핵심 반도체 장비 시장에 대한 중국의 자립화 시도가 가시화되는 신호로 볼 수 있다. 한편 한국과 브라질은 한국-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(FTA) 협상 가속화에 합의했다. 이번 주에는 FOMC 결정(29 일)과 '매그니피센트 7' 기업 등 S&P 500 구성 종목 약 3 분의 1 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, 오늘 아시아 개장에서 간밤 유가 급락과 뉴욕 증시 보합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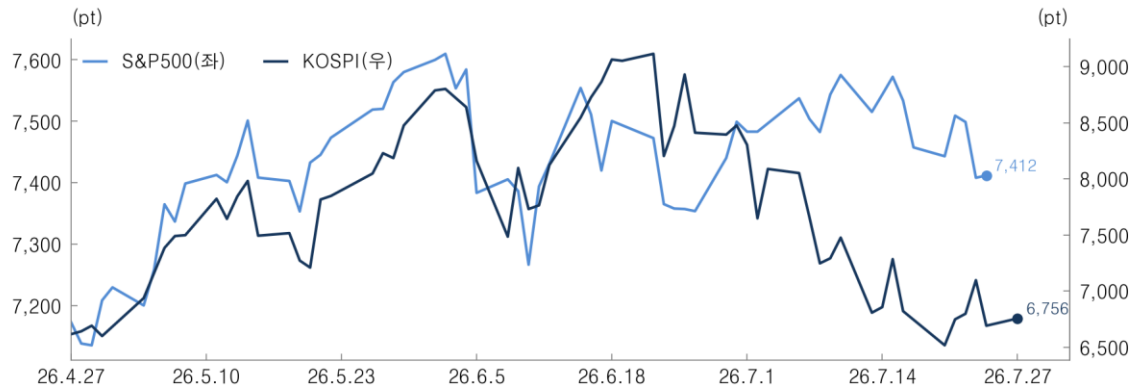


글로벌 주요 자산

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· 직전 확정 종가 대비 · TradingVie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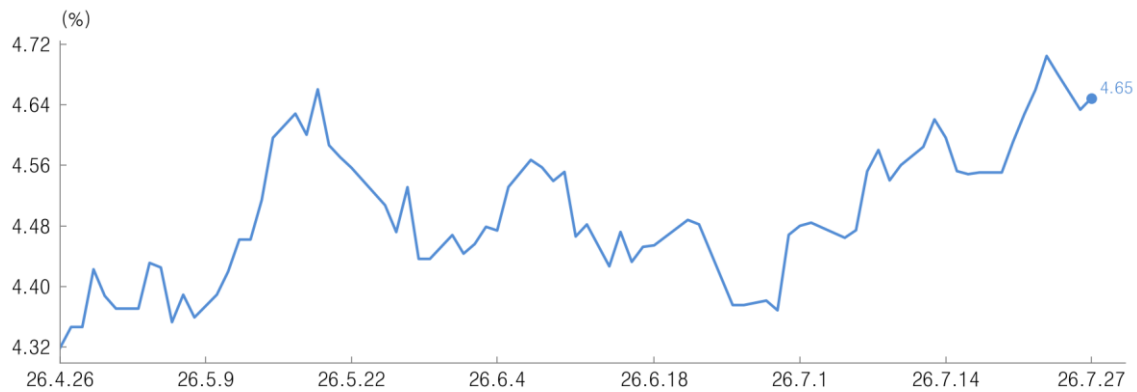
구분	자산	가격	전일 대비	기준
주식	S&P 500	7,413.18	+0.02%	7/27 종가
	나스닥	24,932.07	-0.18%	7/27 종가
	STOXX 600	644.63	+0.02%	7/27 종가
	닛케이 225	64,930.97	+0.50%	7/27 종가
	CSI 300	4,702.43	+1.15%	7/27 종가
	KOSPI	6,755.75	+0.97%	7/27 종가
환율	항생	25,207.18	+0.98%	7/27 종가
	달러인덱스(DXY)	101.50	+0.04%	7/27 종가
	달러/엔	163.68	-0.02%	7/28 종가
	유로/달러	1.14	-	7/28 종가
	달러/원	1,465.79	+0.44%	7/27 종가
	달러/위안	6.77	-0.09%	7/27 종가
금리	미국 10 년	4.647%	-3.4bp	7/27 종가
	미국 2 년	4.320%	-1.7bp	7/27 종가
	일본 10 년	2.782%	-2.2bp	7/27 종가
	독일 10 년	3.134%	-4.9bp	7/27 종가
	한국 10 년	4.330%	-12.4bp	7/27 종가
크레딧	미국 HY 스프레드	279bp	+2.0bp	7/24 종가
원자재	WTI	82.61	-7.50%	7/27 종가
	금	4,077.02	+0.60%	7/27 종가
	구리	6.38	+0.34%	7/27 종가
변동성	VIX	18.68	+0.59%	7/27 종가

S&P500 vs KOSPI — 최근 3 개월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— 최근 3 개월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

권역	요약
글로벌 · 교차자산 뉴스 7 건 HIGH	• 이란-미국 양국 상호공격 중단으로 유가 7~8% 낙폭, 美 채권수익률 동반 하락 ↳ 브렌트유 7.5~8%, WTI 유 6% 이상 낙폭, 지난 2 주간 미국의 이란 공격과 이란의 반격이 주말 중 중단되며 호르무즈 해협 해운 재개 기대로 전환 ↳ 美 장단기 채권수익률 동반 하락,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 ↳ 미국 주식은 혼조 마감, 이번 주 S&P500 구성기업 3 분의 1 이상이 실적발표 일정 • 유가 급락에 위험자산 선호 회복으로 달러 약세 전환, 주요국 통화 강세 ↳ 유로 +0.1~0.4%, 파운드 0.1% 약세 기록, 안전자산 이탈로 신흥국 통화도 반등 ↳ 캐나다 달러 0.2% 약세(1.4115/USD)로 2 주 저점 기록, 유가 연동성 반영 ↳ 캐나다 10 년물 수익률 3.564%로 4.2bp 하락, 유가-금리 동반 하락의 이중 영향 • 10 년 만에 최대 규모의 달러 강세 베팅, 포지션 청산 시 매도 연쇄 리스크 ↳ 투기자 달러 매입 포지션 역대급 규모 도달, 구조적 포지션 조정 압박 증가 ↳ 연준 의사결정 불확실성과 중동 지정학 충격이 주간(1 주물) 옵션 변동성을 구조적으로 상승시킴
미국 뉴스 50 건 HIGH	• 미국-이란 주말 교전 중단으로 유가 급락(7~9.5%), 글로벌 시장 안심 랠리 ↳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주말 2 주간 이란 공습 중단 선언, 이란 보복 중단 의사 표명, 호르무즈 해협 해운 정상화 및 외교 협상 가능성 확대 ↳ 브렌트유 배럴당 \$100 에서 일주일 최저까지 급락으로 단기 인플레이 압력 급감, 달러지수 0.1% 약화하며 위험자산 선호 신호 ↳ 항공사·크루즈선사 등 유가 민감도 높은 업종 강세로 주식시장 혼조 속 S&P500 선물 +0.95% 상승 • 금·채권 일제 상승, 유가 급락에 인플레이 우려 완화 및 금리 인하 기대 ↳ 현물금(XAU) +0.9% (\$4,087~\$4,090/온스), 미국 8 월 금선물 +0.5% ↳ 미국 채권수익률 광범위 하락, 독일 2 년물 -4.3bp(2.777%); 10 년 스왑 기준 6% 수준 상승에 대비한 헤지 수요 지속 • 연준 수요일(28 일) 금리 결정 불확실성 고조, 시장이 38% 확률로 인상 시나리오 평가 ↳ BoA·도이체뱅크 등 주요 기관은 기준금리 동결 기대 유지하나, 워시 의장의 선택적 가이드선스 회피·제한된 정책 신호로 결정이 '접전(close call)' 상태 진입 ↳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에어포스원에서 연준에 금리 인하 촉구('미국이 세계 최저금리 가져야'), 정치적 압력 강화 신호 ↳ 9 월까지 인상 확률은 83%로 평가되며, 단기·중기 시장 기대 간 불일치 심화 중 • 미국 6 월 핵심 자본재 주문 +0.9%, 출하량 4.5 년 최고(+1.9%) — AI 투자 확대 주도 ↳ 신규 주문 +0.9%(5 월 상향수정 포함), 월별 기업 설비투자 의향 개선 지속 ↳ 월별 출하량 +1.9%는 4.5 년 만의 최대 증가폭으로,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·반도체 제조 장비 수요 반영 ↳ 2 분기 경제 성장이 제조업·설비투자 중심으로 견조한 속도 유지 중인 신호 • 중국, 미국의 '강제노동' 관세에 강력 반발 — 미-중 교역 휴전 불안정화 우려

권역	요약
	- 미국이 지난 금요일(25 일) 강제노동 근거로 60 개 국가·파트너에 10~12.5% 관세 부과(중국 12.5%, EU·기타 10%) - 중국 상무부, '부당 조치·보호주의'로 규정하고 즉시 철폐 요구, 최근 합의한 미·중 교역 소강 재악화 위험 - 트럼프 정부의 강제노동 적발 및 관세 정책이 통상 갈등 재점화 추동 중 • 렉서리 소비 지역별 양극화 — LVMH 2 분기 매출 +3%(약 2 조 유로·\$222 억), 미국 강세·유럽·중동 약세 2 분기 환율 조정 기준 매출액 약 2 조 유로(195 억 유로, \$222 억), 애널리스트 합의치와 일치 - 미국 판매 +6%(1 분기 +3%에서 가속), 유럽·중동·페르시아만 이란 분쟁 영향으로 저조 - 글로벌 소비자 수요에서 안전지역(미국) 집중, 지정학적 영향권 수요 위축의 단면 반영 • 트럼프 정부의 '2027 년 1 월 중국 광물 수입 금지' 목표, 미국 산업 역량 부족으로 현실화 차질 - 미국 광산·정제 산업의 용량 부족으로 목표 달성 불가능한 상황 노출, 방산 계약업체에 미국산 공급원 계약 권장 추진 중 - 임금제(미국산 공급망 확보) 정책의 실행 가능성 재검토 시점 진입, 기한 전 중국산 수입 면제(waiver) 필요 가능성 높음
유럽 뉴스 11 건 HIGH	• 미국-이란 공격 중단에 유가 9.5% 급락, 유로존 채권 수익률 하락 - 트럼프 행정부, 지난주말 이란 폭격 중단 결정 — 양국 상호 공격 일시중단으로 외교 해결 신호 -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 재개 기대로 지정학 위험프리미엄 축소 - 독일 2 년물 국채 수익률 4.5bp 내려 2.77%, 단기 인플레이 우려 완화 • 이탈리아, 재정 부담 속 디젤 유류세 감면 재개 — 8 월까지 연료비 억제 -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·소비자 물가 급등, 멜로니 정부 가계 부담 경감 압박 가중 - 재정 규율과 물가 관리 사이 줄타기 (EU·IMF 가 이전 감면에 비판했음) - 조치 유효 기간 8 월 31 일까지 • 파운드, 유가 급락으로 금리인상 베팅 축소하며 0.07% 반등 - 브렌트유 배럴당 \$87.84 로 9% 하락 → 에너지 인플레이 우려 완화 → 영란은 금리인상 압박 약화 - 금융시장, 9 월 인상 확률 약 50% 평가 (전보다 후퇴) - GBP/USD 1.3330 (전일 비 0.07% 상승) • 스털링, 지정학·정책 불확실성 속 중기적 약세 지속 — 1.33 근처 고착 - 번험 총리 취임 초반(7 월 중순 1.3556) 이후 하락세 재개 3 거래일 연속 1.33 지지선 형성, 중동 분쟁 변동성에 일시 반등 후 재하락 • 유로, 강한 하락 복원력으로 1.2165 목표가 설정 2025 년 2 월~2026 년 1 월 랠리(1.0125→1.2084) 후 올해 매도에도 탄력 있는 지지 유지 - 금전시장 데이터로 추정 시 약 \$350 억 규모 유로 롱 포지션 축적(기록 2 위 수준) • 영국 번험 총리, 금년 예산안에서 주택거래세 변경 배제 • EU 작물 수확 전망 전면 하향 — 열파·가뭄 피해 반영 - 모니터링 서비스 MARS, 모든 곡종 수확량 예상치 인하 — 잇따른 열파로 곡물 충전기 단축·조기

권역	요약
	수확 ↳ 유럽 최근 연속 열파로 극심 가뭄·수자원 부족·대규모 산불 초래, 추가 하향 가능성 • 이탈리아 기계공구업, EU에 중국 상대 무역 방어 강화 촉구 ↳ UCIMU 협회, 중국 공작기계 수출 급증으로 유럽 전략산업 위협 경고 ↳ 유럽의 글로벌 시장점유 하락·대중국 수출도 감소 추세 • 포르세, 2035년까지 5,000명 추가 감원 결정 ↳ VW 자회사 포르세, 2차 구조조정 합의 (1차 3,900명 감원 이후) ↳ 높은 비용·경쟁 격화·관세 위협 속 VW 그룹 광범위 구조조정 임박
중국 뉴스 5건	• 중국, 자체 개발 심자외선(DUV) 리소그래피 장비 제조 착수 — ASML 독점 체계 우회 ↳ 올해 내 SMIC, Hua Hong Semiconductor, ChangXin Memory Technologies 등 중국 주요 반도체 제조사에 납품 예정, ASML(네덜란드)이 장기 지배해온 고급 칩 제조 장비 분야에 처음 자체 개발 제품 투입 ↳ ASML은 기술 경쟁 우려를 이유로 공식 입장 표명 거절 • 중국, 미국 강제노동 혐의 301조 관세에 강력 반발 — 일방적 조치 취소 촉구 ↳ 상호존중·평등·상호이익 기반 대화 의지 표명하되 미국의 해로운 행위에 필요한 조치 취할 권리 명시 ↳ 미국의 '잘못된 관행' 즉시 바로잡고 일방적 관세 즉각 취소할 것 촉구 • 중국, 미국의 AI 기업 제재·조사 위협에 반발 — 명예 훼손·일방적 조치 중단 촉구 ↳ 중국 상무부, 미국의 중국 AI 기업에 대한 '명예 훼손·제재 위협' 즉시 중단할 것 촉구 ↳ 중국 측 반박 — 미국 AI 기업들도 연구·개발·훈련 과정에서 중국 모델을 광범위하게 활용 중이라며 미국의 일관성 부족 지적 ↳ 미국의 해로운 행위에 필요한 조치로 대응할 입장 명시
일본 뉴스 1건	• 타카이치 산에 총리, 일본의 디플레이션(지속적 물가하락) 복귀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 ↳ 현재 인플레이션 진행 중이지만 경제가 완전히 디플레이션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 ↳ 물가 주기와 원인을 신중히 살펴보면 중동 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정밀 검토 중
한국 뉴스 2건	• 한국-메르코수르 FTA 협상의 조속 진행 강조 ↳ 한국 대통령이 브라질 방문 중 룰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미 경제블록(아르헨티나·브라질·파라과이·우루과이) FTA 체결의 시급성 재강조 ↳ 대통령 발언: '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 사항' • 한국-브라질, 핵심 광물 협력 확대에 정상 합의 ↳ 배터리·전기차·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원재료 확보를 위한 협력 확대에 기본합의 ↳ 한국의 전략광물 수입 다변화·공급망 다원화 전략의 일환
인도 뉴스 4건	• 인도 국채·루피, 유가 급락에 동반 강세 — 수익률 2개월 저점, 환율 6주 최고 ↳ 미-이란 휴전 후 유가 급락(Brent crude -9%), 인도의 경상수지 개선 기대 ↳ 벤치마크 6.94% 2036 채권 수익률 6.7739%로 하락(금요일 6.8253%에서), 2개월 만의 최대 일일 낙폭

권역	요약
	↳ 루피 달러 대비 6 주 만의 최고치, 달러-루피 환율 96.5625 에서 95.7950 으로 하락, 개장 96.1475 기준 +0.7%, RBI 추정 개입 • Tata Power 태양광 유럽 수출 추진, EU 의 중국 의존도 감소 배경 활용 ↳ Tata Power CEO 발표, 태양광 셀·패널 등 장비의 첫 유럽 수출 추진 ↳ EU 태양광 수입의 94%가 중국산 공급(2023 년 기준), 공급망 다변화 정책 진행 중 ↳ 이탈리아, EU Net-Zero Industry Act 하에서 중국 비(非)산 장비로 건설된 태양광 프로젝트 수입 개방(2025 년)
브라질 뉴스 13 건	• 미국-이란 휴전으로 유가 일주일 최저 — 라틴아메리카 리스크 선호도 회복 ↳ 중동 긴장 완화(주말 미-이란 상호 공격 중단)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전망 부상, 글로벌 시장 심리 개선 ↳ 라틴아메리카 주식 소폭 상승(+0.3%), 외환은 약세 국면(-0.4~0.5%) • 브라질-한국, 메르코수르 무역협상 가속화 합의 — 어제 루라 대통령 회담 ↳ 양국 대통령이 어제 브라질리아에서 협상 진전에 합의, 작업반(working group) 구성 예정 ↳ 브라질은 미국 관세 영향 속에서 무역 파트너 다각화 추진 중;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·파라과이·우루과이 포함 • 재무장관, 미국 관세를 '외부 개입'·'완전히 황당하다'고 비판 — G20 회담에서 문제 제기 예정 ↳ 어제 라디오 조르날 인터뷰에서 발언, 강도 높은 거부감 표현 ↳ 8 월 G20 재무장관급 회의 측면에서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와의 회담 계획 • 2027 년 경제 성장 전망 엇갈림 — 정부는 2% 이상, 경제학자는 1.5% 수준 ↳ 두리강 재무장관: 고금리에도 경기침체 위험 없으며 정부 전망은 2% 이상 성장 ("경기침체 논의는 과장") ↳ 일부 경제학자: 고금리로 성장을 1.5% 수준까지 둔화 가능하나 경기침체 수준은 아님 ↳ 중앙은행 설문(어제 발표): 2026 년 소비자물가지수(IPCA) 5.12%, 2027 년 4.22%; 기준금리(Selic) 연말 기준 2026 년 14.00%, 2027 년 12.00% 예상 • 고금리 해결에는 '재정조정'이 최선 — 정부, 장기 채무 궤도 입증 목표 ↳ 두리강: 공공채무 현황은 통제 중이나 "지속 가능한 채무 궤도" 입증에 핵심 과제 ↳ 정부 목표: 2030 년부터 채무/국내총생산 비율 감소 추진
멕시코 뉴스 1 건	• 멕시코 2 분기 국내총생산(GDP) 1.3% 성장 회복 전망(로이터 설문) ↳ 계절조정 기준 애널리스트 11 명 중앙값, 1 분기 -0.6% 축소에서 반등 ↳ 산업 활동 회복이 주요 동력, 2022 년 1 분기 이후 최고 분기 성과 가능성 ↳ 공식 통계청 발표는 목요일(7 월 31 일) 예정
남미 기타 뉴스 7 건	• IMF 총재, 아르헨티나 경제개혁 진전 인정하면서도 2027 년 채무 부담 경고 ↳ Kristalina Georgieva IMF Managing Director 가 오늘 Buenos Aires 기자회견에서 Javier Milei 대통령의 개혁 정책 추진에 신뢰 표명하면서도, 2027 년 주요 채무 상환이 재선 입후보와 시점 겹침 우려 언급 ↳ 수출 확대·외환보유고 축적·인플레이 둔화 등 개혁 성과 인정하는 한편, IMF 공식 입장에서는 '예외적 위험 요소(exceptional risks)' 존재 경고 ↳ 최근 Moody's 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긍정 신호이나, 2027 년 채무 규모와 상환 능력 간 격차에

권역	요약
	대한 시장 우려는 여전히 존재 • 로이터 설문, 2026 년 아르헨티나 인플레 전망을 32.3%로 상향 조정 ↳ 어제 발표된 로이터 경제학자 설문에서 2026 년 평균 인플레 전망 32.3%(4 월 30.0% 대비 +2.3 포인트), 2027 년 22.3%(21.0% 대비 +1.3 포인트)로 상향 ↳ GDP 성장을 전망은 유지되고 있으나, 정부의 재정 긴축 정책 지속 속에서 인플레 압력의 재부각 반영 ↳ 2 자리 수 물가 상승률이 2027 년까지 이어질 전망 • 베네수엘라 채권자 위원회에 15 개 펀드 이상 신규 합류, 채무 재구조화 협상 확대 ↳ 2026 년 1 월 Maduro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의 미국 체포 이후, 국제 펀드들의 채권자 위원회 참여 확대 ↳ 채무 협상 당사자 범위 확대로 향후 재구조화 논의의 복잡성과 변동성 증대 예상
EM 기타 뉴스 5 건	• 루마니아, 드론 영공침범 혐의로 러시아 외교관 추방 ↳ 루마니아 F-16 전투기가 지난 25 일(금)부터 27 일(일) 사이 러시아 드론 3 대 격추 ↳ 루마니아 외교부, 러시아 대사관 외교관 1 명 추방 결정을 대사에게 통보 ↳ 러시아 대사관은 루마니아를 목표로 드론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'근거 없는 비난'이라고 반박 • 러시아 중앙은행, 2026 년 인플레이션 전망 6~7%로 상향 조정 ↳ 푸틴 대통령이 지난 27 일 의회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성 경고 ↳ 러시아 중앙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 회의에서 2026 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종전 4.5~5.5%에서 6~7%로 상향 조정 • 중동 주식시장, 미국-이란 분쟁 외교 정상화 기대에 상승 ↳ 결렬만 국가 주식지수가 미국-이란 분쟁의 외교적 진정 가능성에 투자심리 개선, 주요 벤치마크 상승 마감 ↳ 사우디아라비아 지수는 사흘 고점 터치 후 보합 마감(Aramco -0.2%, 유시설 공격 여파), 두바이 지수는 +1.0%로 거의 한 달 만에 최강 세션 ↳ 닥터 솔라이먼 알하비브 주식 +3.8%(5 월초 이후 최고), 아부다비 이슬람은행 이집트 +4.8%(사상 최고) • 폴란드 총리, 8 월말 휘발유 가격 인하 조치 재검토 의향 ↳ 도널드 투스크 총리가 지난 27 일 유가 변동성 지속 시 8 월 마지막 2 주(여름휴가 귀국 성수기)의 휘발유 가격 인하 조치 재도입 검토 의사 표명 ↳ 폴란드는 3 월 미국-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가격 상한제 도입, 중동 긴장 완화로 지난달 말 규제 해제, 이후 유가 재상승
프론티어 뉴스 12 건	• 파키스탄 중앙은행, 정책금리 11.5% 유지 — 미-이란 분쟁 속 인플레 진정 신호 우선 고려 ↳ 지난 4 월 100bp 인상 이후 처음 보합, 호르무즈 해협 유가 위협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완화 흐름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 ↳ FY27 실질 GDP 성장을 전망 3.5~4.5% ↳ 외환시장에서 지난 3 년간 \$280 억 규모 매입으로 외환보유액 강화 • S&P, 방글라데시 신용 아웃룩 하향 조정 — 은행 취약성과 에너지 비용 압박이 주요 리스크

권역	요약
	↳ 신용등급(B+/B)은 유지하나 신용도 악화 경로로의 이행 가능성 경고 ↳ 국내 은행 부문 구조적 취약성,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지속 상승, 의류 수출(세계 2위) 시장 불확실성이 주요 위협 ↳ 인플레이션 수준 여전히 높은 상태(에너지 시장 변동성 지속)

출처: Reuters,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금융투자업규정 4-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담당자:조재운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자료는 인공지능(AI)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,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